

즉시 배포용: 2019년 5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500여명의 학생이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 과정을 통해 무인 항공기 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을 훈련받았다고 발표

2017년 9월부터 드론 운영에 대한 훈련을 받은 500명 이상의 공공 안전 공무원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서 공공 안전 운영을 위해 무인 항공기 시스템, 드론을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4월에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운영에 개설된 4개 과정 중의 하나인 무인 항공기 시스템 인식(UAS Awareness) 워크숍에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공 안전 공무원과 긴급상황 대처자들에게 드론을 공공 안전 운영을 위해 통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훈련 시즌 대부분이 아직 앞서 있기 때문에, 사무국은 내년에 이 숫자를 크게 늘리고 2020년까지 수백 명의 운영자를 더 양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드론 시스템의 개발에서 전략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투자를 통해, 이러한 기술로 주의 공공 안전 운영을 구현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서 이용 가능한 훈련으로 긴급상황 대처자들은 응급 상황을 평가하고 이전과는 다른 운영 및 대응 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확대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 경제 개발 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의 의장으로서, 첨단 기술의 드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 노력의 진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훈련시키는 이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전달하고 뉴욕주의 공공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구축하고 더 많은 학생들을 훈련시켜 운영을 개선하고 드론 시스템의 개발을 앞당기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공 안전 전문가들이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중을 보호할 것입니다. 수색과 구조, 피해 평가 및 화재 조사와 같은 몇몇 분야에서

우리의 운영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세계적인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드론 훈련 프로그램은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잠재적인 생명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갖추도록 합니다."

뉴욕주는 긴급상황 대처자 공동체를 위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훈련의 개발과 전달에서 국가적인 선도자로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몇 개의 주정부 중의 하나입니다. 뉴욕주가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은 긴급상황 대처자 공동체 전체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연방 항공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 제공하는 지침에 기반합니다. 몇몇 주정부와 지역 기관들은 현재 기관 드론 운영을 수행하기 전에 조종사들이 이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이 개설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훈련 과정은 공공 안전 공무원과 긴급상황 대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 안보 및 대비 국가 센터(National Center for Security & Preparedness), 및 드론 운영의 또 다른 기관인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 Conservation)의 지도자 팀이 이 과정을 가르칩니다.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Preparedness Training Center)는 무인 항공기 훈련 프로그램(Unmanned Aircraft Training Programs)의 4가지 첨단 과정을 제공합니다.

- **무인 항공기 시스템 인식(UAS Awareness) 워크숍**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공공 안전 기관들의 대표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운영, 규정, 과제,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프로그램 관리 및 반무인 항공기 시스템(counter-UAS) 문제에 대한 개요를 포함합니다.
-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파트 107(Part 107) 준비 과정** 예비 공공 안전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조종사들이 연방 항공국(FAA)의 파트 107 테스트(Part 107 Exam)를 대비하여 성공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시험은 드론을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한 규정, 운영 요건 및 절차에 초점을 맞춥니다.
-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기본 운영자 과정** 참가자들이 지상 및 비행 학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윤리적인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과정의 주제들은 법적, 윤리적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운영, 비행 허가, 승무원 자원 관리, 비행전 의사결정, 위험 분석, 임무 계획, 사진 및 비디오, 기술 향로 및 시나리오를 포함합니다.
-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고급 운영자 과정** 비행 기술 향로와 시나리오를 통하여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운영자의 기술적 기량과 판단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과정의 주제들은 제한된 공간/기술 비행, 저조도 비행, 탑재 장비 배치 및 고급 자율 비행 기능을 포함합니다.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 소개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서 운영하는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의 방대한 훈련 장소는 긴급상황 대처자들에게 현실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의 1,100에이커에 달하는 훈련장은 45,000제곱피트의 모의 도시, 주택 단지, 붕괴된 건물 파편 더미, 삼림 지대 구조물, 기차 차량 및 기타 환경이 포함됩니다. 현재 13년을 맞이하는 뉴욕주 대비 훈련 센터(State Preparedness Training Center)는 매년 사법 집행 기관, 응급 의료 서비스 및 기술 구조 인력을 포함한 수천 명의 뉴욕주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테러, 천재, 위협, 화재 및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방문, [@NYS DHSES](#) 트위터 팔로우 또는 [dhSES.ny.gov](#)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